FX Market Daily

2026-06-01

전일동향	전일 대비 5.10원 상승한 1,507.90원에 마감

29일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30원 하락한 1,495.50원에 개장했다.
삼성전자 분기 배당금 지급에 따른 역송금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상승 전환하며, 전일 대비 5.10원 상승한 1,507.9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3.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6.67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95.50	1508.70	1494.90	1507.90	1503.20
엔화	943.57	948.31	938.30	946.67	-
유로화	1750.73	1759.56	1741.51	1757.87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9	-3.65	-7.67	-15.03
결제환율(수입)	-0.63	-2.3	-5.47	-11.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에...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507.90) 대비 0.35원 하락한 1,506.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불확실성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영향으로 상승 전망한다. 미-이란 간 협상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가능성 시사 발언과 이란의 부정적인 입장이 대립하면서, 시장에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휴전 연장 수정안을 교환했음에도 협상 진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종전 낙관론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흐름이 이어지며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과 수출업체 이월 네고물량의 유입은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00.67 ~ 1511.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420.6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35원↓
	■ 美 다우지수 : 51032.46, +363.49p(+0.7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87.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975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